

# '지붕 없는 문화' 지역청년 참여를

### 전주시·전주문화재단, 프로젝트 발전방안 포럼 개최... 지역인력 양성·운영비 지원 등 제언

전주시가 풍남문 광장과 첫마중길 등 주요 거리와 광장, 버스정류장에서 추진해온 '지붕 없는 문화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6일 전주 유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올해 추진해온 지붕 없는 공연장과 지붕 없는 미술관(이동형 갤러리 '꽃심'), 예술이 있는 승강장사업 등 지붕 없는 문화 프로젝트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붕 없는 문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에 나서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자발적으로 버스킹과 작품전시 등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유희공간의 시민문화 공간화,

그리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한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지붕 없는 예술은 유희공간, 그 안을 채울 사람, 즐기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노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 공간은 언제라도 채워질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역을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조직자이며, 인위적으로 조직자를 만들어내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유희공간 중 거점이 되는 공간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예술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문화예술인력에게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아이템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조아라 첫마중길 지붕 없는 공연장 운영자와 하형래 대학로 광장 지붕 없는 공연장 운영자, 변재선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박승호 예술이 있는 승강장 참여 예술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첫마중길 지붕 없는 공연장

사례를 발표한 조아라 씨는 "지붕 없는 문화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라며 "버스킹 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 예술문화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자체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장결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좌장으로 김남규 전주시의원과 김병수 전주시 문화정책과장, 이준희 버스커즈팩토리(거리공연단체) 대표, 최민우 지붕 없는공연장 참여자, 최기춘 삼천문화의집 관장이 참여한 종합토론회도 펼쳐졌다.

이와 관련, 시는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 도시 곳곳을 문화예술로 채우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4월부터 10

월까지 전주시역 5개 문화의 집과 함께 하는 지붕 없는 공연장 사업을 통해 거리와 광장 등 유희공간 6개소에서 버스킹 등 각종 문화공연을 펼쳤다. 또, 풍남문 광장과 대학로 등에는 전주 이동형 갤러리 '꽃심'이 찾아가 지역 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참여 속에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와 전주 첫마중길 승강장 3곳, 호남제일문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오목대·한옥마을 서늘·시내버스 승강장, 월드컵경기장 동문 버스 승강장 등 13개소를 예술이 있는 승강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시는 문화기획자와 지역 청년 작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제한한 이번 포럼을 통해 추진과정에서 걸린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 내년부터는 보다 완성도 높은 지붕 없는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

## 김순정, 전북예총하림예술상 공로상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지난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공연장에서 (사)한국예총전북연맹회(회장 선기현) 주최로 열린 제21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 시상식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이자 국악협회전북지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등을 발의했다. /김민근 기자

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등을 발의했다. /김민근 기자

## 김명지 의장, 자치분권 헌법개정안 요구

###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행안부장관에 지방의회 개선책 건의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철)가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회장인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이 2개항에 불과한 중앙집권적 헌법이자, 최소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장은 자치입법과 자치행정 및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헌법개정안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또 그동안 지방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사무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민원이 어느 때보다 폭증하고 있다"면서 "의원의 역량강화와 민원해결을 위해 기초의원에 전문적인 업무보좌를 해 줄 의원 보좌관을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1명씩 지원하는 광역선거구별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 대한 인사권 환원 및 지방의원에게 대한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이장과 통장의 수당 인상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김민근 기자

## '도시의 기억을 걷다' ... 시민이 모은 전주 기록물 전시

### 11일~22일 시청 로비에서

전주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각종 전주 관련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도시의 기억을 걷다'를 주제로 제2회 시민이 모은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앞서 진행된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작을 중심으로 기존의 날과 기증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모은 전주 관련 기록물 4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주요 기록물은 지난 1920~60년대 전주 일대기를 담은 사진 및 문서, 1959년 전통성당 학생회 창간호 성우(聖友), 1980년대 가족 앨범 및 도조 문서, 1911년 신약전서, 총 447개월 동안의 월급봉투, 1965년도 호남약도 등이다.

또 국립건설연구소 전주지도(1969년)와 1930년대 영수증서, 1940년대

전주보정 소재 '전촌' 주장 도자기 술독 등 책·문서·사진·박물류 등을 종량라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특히 제3회 수집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된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 건립 당시 전주천의 모래와 자갈 채취부터 경기장 완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136점의 사진도 전시 기간 동안 만나볼 수 있다.

또 특별 전시로 전주문화원이 소장 중인 향토 자료와 참암 이삼만 서예물, 고 천이두 교수의 일기 30여 권(1948~2000년)도 선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전시회 첫 날인 오는 11일 열리는 개막식에 기록물 기증자와 기록 관련 지역의 원로, 전주시 민간 기록물 관리위원 등 기록물 수집 관리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도시의 기억을 걷다'를 주제로 제2회 시민이 모은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제1회 전주기록물전시회 사진)

## CCTV 없는 교회 헌금 훔친 20대 검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회만 노려 헌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3시에 정읍시 농소동의 한 교회에 침입해 서재에 있던 1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정읍, 익산, 울

산 등지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지난 7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삼민 기자

## 실업급여문제로 고용센터 불지르려 한 50대 입건

실업급여 지급이 끊기자 고용센터에 방화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6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에 남원시 하정동의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 사무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지급이 끊기자 고용센터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거부당할 것 같아 자신의 차량에 있던 휘발유를 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고용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삼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운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